



로마 교회의 믿음

로마서 1:8-10 절을 공부해 보십시오.

로마서 1 : 8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먼저 8 절에 대한 공부부터 해 보십시오.

I. 로마 교회의 믿음에 대해

로마서 1 : 8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복음 전파가 시작된지 30 여 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복음은 벌써 온 세상에
전파되었습니다.

이 구절에서 온세상은 어디를 말합니까?

그 때의 온 세상은 지중해 연안으로 둘러 쌓인 로마 제국의 판도를 말합니다.

사도들의 발걸음이 닿지 않은,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평신도들에 의해 교회가 설립되어, 제국과
미래를 이끌어갈 모범적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8절을 다시 읽어 보면,

로마서 1 : 8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무엇때문입니까?

로마 교회는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인하여 유명해졌습니다.

로마 교회가 강력하게 된 원인이 믿음에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믿음은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과 일치하는 복음임에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사도적 전통을 갖지 않은 믿음에 대해서는 저주를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1 : 7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1 : 8 그러나 우리나라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서 1 : 9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과 일치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면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이 믿음과 일치하지 않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저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로마 교인들이 가진 믿음은 똑같습니다. 이 믿음으로 로마 교회는 모범적인 교회가 되고, 주님께서는 이 믿음에 의해 미래를 이끌어갈 반석을 삼은 것입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사도들이 예수님께 직접 받아서 우리에게 전하여 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고백에 의해 교회가 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2 : 20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사도들의 터위에 세워진 믿음의 내용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도신경에 대한 믿음입니다.

로마 교회 교인들이 가진 강철 같은 믿음은 사도들이 전하여 준 사도 신경과 일치하는 견고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만큼 폭발력을 가진 메시지는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 오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였다는 사실만큼 폭발력을 가진 메시지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죽어서 널부러져 있던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 가면 그 사람은 살아 펄펄 뜹니다. 기적으로 살아났는데, 그대로 널부러져 누워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죽은 사람입니다.

산 사람이 아닙니다. 산사람은 기뻐서 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자기 안에 들어 왔다고 하는데 그냥 누워서 잠자고 있을 사람은 없습니다.

믿음은 밖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볼까하는 시선이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이 산 믿음이 로마 교회의 믿음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평신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II. 다음은 로마 교회 성도들은 어떤 신앙 생활을 하였습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에 일치되는 믿음과 함께 선한 마음과 바른 지식을 가진 신앙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15 : 14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선함은 선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로마 교회의 믿음은 선한 마음과 지식으로 가득 찬 행동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선한 마음과 바른 지식!

이것은 믿음을 온전히 하는데 있어서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람이 바른 지식이 있으나 선한 마음이 없으면 그 지식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사용됩니다.

로마서 2 : 1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무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또 사람이 바른 지식은 없고 선한 마음만 있으면 그 선한 마음은 맹목적이 되어
jelly-fish가 됩니다

잠언 19 : 2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릇하느니라
지식이 없는 선함은 선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정말로 선한 마음과 바른 지식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온전한 인격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에 바른 지식과 선한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로마 교회는 선한 마음과 바른
지식이 넘치는 교회이었습니다.

신앙이 장성한 자는 선악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지식을 선한 마음을 가지고 쓰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장성한 자들의 신앙 생활에 대하여

히브리서 5 : 14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하므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로마 교회처럼 발전하기 위해선 바른 지식과 선한 마음으로 가득찬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선한 마음과 바른 지식은 어떤 것인가요?

III. 또 8 절에는 사도 바울의 선한 마음과 바른 지식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이 보통 사람이라면 다른 교회의 좋은 소식을 듣고 그 사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까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교회가 부흥 발전하고 있다면, 그런 가보다 하든지, 아니면 시기하여 헐뜯고 증상 모략하는 것이 현대의 교회 풍토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교인을 찢어 가지 못해 안달일 것입니다.

교역자들이 이런 자세로 목회를 하니가 교인들 중에는 다음과 같이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부흥은 목사를 위한 것이다. 목사가 자기 야욕을 채우기 위해 외치는 것이니 휩쓸리지 말자 하며 교회를 부흥시켜야 한다는 말을 하면 아예 고개를 돌리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바울 사도는 참다운 종으로써 자신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에 대해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써 주인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에서 자신의 선한 마음을 다음과 같이 진실되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 : 12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빌립보서 1 : 13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빌립보서 1 : 14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하므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빌립보서 1 : 15 어떤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빌립보서 1 : 16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빌립보서 1 : 17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빌립보서 1 : 18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 빌립보서는 시위대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입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 간 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신앙적 자극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를 따라 핍박도 각오하며 감옥도 불사하겠다는 마음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보서 1 : 14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하므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그렇지만 어떤 다른 사람들은 평상시에 바울을 투기하고 분쟁을 일삼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바울이 감옥에 들어 간 것을 보고, 공개적으로 혹은 보이지 않게 비웃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빌립보서 1 : 15 어떤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빌립보서 1 : 17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렇지만 바울은 그런 두 그룹을 바라 보면서 다음과 같이 자기의 심경을 토로합니다.

빌립보서 1 : 18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든지 전해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선한 마음으로 전하던지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전파하던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니 자신은 그것으로 기뻐한다는 마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된 자의 주인에 대한 선한 바른 마음 자세입니다.

이런 종을 주님이 축복을 해주시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주인에게 유익이 되는 것으로 나는 만족한다. 주인이 기뻐하시면 그것으로 족하다. 나는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한다!

이것이 바로 참다운 그리스도의 중의 마음 자세입니다. 선한 마음을 가진 중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런 심장을 가지고 있으니 로마 교회의 믿음이 온 세상에 퍼지는 것을 보고 주인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교회를 가슴에 두고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 : 8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로마서 1 : 9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신앙 생활을 하니 예수님이 축복을 안주실수가 없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로마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선한 마음과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5 : 14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로마 교회는 평신도들이 사도 바울과 같은 신앙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교회가 이런 선한 마음과 바른 지식을 가지고 신앙 생활을 하니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제국과 세계의 미래를 이끌어 갈 교회가 된 것입니다.